

조선중기 창의를 구성의 이해 -전 박장군묘 청색무명겹창의의 재현을 통하여-

장 인 우

인천대학교 의생활학과

Understanding the Construction of Chang-*ui* in the Middle Chosun Dynasty -Through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Chang-*ui* Excavated from General Park's Tomb-

Chang, In-Woo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Incheon University
(2000. 10. 6 접수)

Abstra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hang-*ui* construction of the middle Chosun Dynasty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the blue Chang-*ui* which was excavated from General Park's tomb.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 are 4 styles in excavated Chang-*ui* of middle Chosun Dynasty: Two styles seem to belong to the early 17th Century and the other, the late 17th century. The former is classified into 2 styles by the gender of the wearer, the latter is also classified into 2 styles by etiquette of clothing. We can assume that Chang-*ui* excavated from General Park's tomb was the woman's clothing in early 17th century. This Chang-*ui*(II) differs from other Chang-*ui*(I) at two points. One is the construction of the trapezoid and triangle gussets on the side seam of clothing. The other is the construction of the narrow width of clothing(23cm). We have found that these two gussets could improve the active aspect of clothing and save materials. It is identified that the green tone was faded from the blue color of Chang-*ui*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of the L^*a^*b .

Key words: reconstruction, chang-*ui*, General Park' tomb, gusset; 재현, 창의, 박장군 묘, 무

I. 서 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해되어 사라지는 유기물인 복식자료는 복식연구에 있어서 그 시기의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과거 유물이 지니는 보존과 정보의 자료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출토복식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가운데 하나인 충북대학교 박물관은 유기물로서 다른 어떤

유물보다도 파손의 위험을 많이 지닌 과거 복식을 재현하여 전시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재현품을 전시함으로써 과거 실물자료의 파손을 방지하고 또 보고자 하는 관람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박물관의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이러한 재현과정을 통하여 유물의 의복 정보를 파악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충북대학교 박물관소장 유물가운데 전

박장군묘 출토 청색무명접창의의 재현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청색무명접창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현하고자 한다. 첫째 의복의 색상이 기타 유물과는 달리 선명한 청색인 점, 둘째 염색방법이 선염이 아닌 후염이며, 부분염색인 점으로 현존 유물가운데 몇 안 되는 유일한 것이다. 또 본 유물의 색상이 현재 현저히 퇴색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본 유물의 출토지인 전박장군묘 출토복식과 조선중기 창의를 통하여 청색무명접창의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실물조사를 통한 청색무명접창의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 제작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중기 창의의 구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II. 청색무명접창의의 출토과정

청색무명접창의가 출토된 전 박장군묘의 출토배경과 출토의복의 종류를 살펴 청색무명접창의가 지닌 복합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전박장군묘 출토배경과 특징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복식유물은 조선중·후기의 출토복식¹⁾과 근대복식²⁾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전 박장군묘는 1980년 4월 대청댐 건설 중 수몰지역내의 무연고 무덤이장과정에서 충북(忠北) 청원군(淸原郡) 문의면(文義面) 후곡리(後谷里) 노계산에서 유물이 발굴된 경우이다. 이러한 전 박장군묘 유물의 최초기록은 김동욱·유송욱에 의한 중요민속자료 지정보고서가 있으며³⁾, 이후 충북대학교 박물관의 보고서⁴⁾로 정리되었으며, 1981년 11월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중요민속자료 117호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전 박장군묘의 출토복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정확한 출토배경의 추정이 어려운 점이다. 대부분의 출토복식은 후손에 의하여 피장자가 밝혀졌으나 유독 전 박장군묘는 무연고 무덤이다. 따라서 피장자의 생존연대와 신원이 불확실하다. 그러나 출토의복의 형태 등을 통하여 조선중기 특히 임란직후의 의복으로 추정한다(김동욱, 1983).

둘째로 이 무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의복이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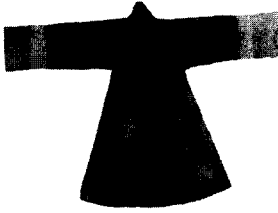
굴된 점이다. 전박장군묘 출토의복은 총 35점이며, 포류(7)에는 단령(團領)·도포(道袍)·직령포(장의⁵⁾直領袍/長衣)·구의(裘衣)·창의(裳衣)가 있으며, 저고리류(14)는 목판깃저고리 I 형과 목판깃저고리 II 형 그리고 칼깃저고리 그리고 당코깃저고리의 다양한 종류가 모두 있으며, 하의류(5)는 치마와 바지류가 있다. 기타류(9)에는 모자·띠(帶)·이불·악수(握手)·명목(暝目)·상투가 있다.

셋째 전 박장군묘의 출토의복은 독특한 디자인의 의복이 많은 점이다. 유물 가운데에서 아청색무명접유직령포(장의)와 청색무명접창의 그리고 농갈색무명직령포(장의), 두루색목단당저고리 그리고 소색명주저고리에서 당시 일반의복과는 달리 다양한 염색법과 색조가 표현되고 있다.

아청색무명접유직령포(장의)는 [사진 1]과 같이 쪽으로 염색된 남색이다. 그러나 그 염색상태를 볼 때 마치 흘치기와 같은 부분염이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자들은 의복의 일부분이 탈색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의복이 원래 이렇게 불규칙하게 염색되었는지 혹은 부분퇴색이라면 [사진 1]과 같이 불규칙한 퇴색이 가능한 것인가의 의문이 제기된다. 이 의복의 경우도 퇴색이 아닌 부분염색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와 유사한 유물이 다른 출토지에서 발견된 예도 있다⁶⁾.

또 청색무명접창의([사진 2])는 청색무명접유바지와 함께 청색을 띠고 있다. 또한 청색무명접창의는 염색방법에 있어서도 의복의 일부분만 염색된 점이다. 이는 동출토지 소색명주저고리[사진 5]에서도 볼 수 있다. 농갈색무명직령포(장의)[사진 3]는 현재는 동 출토지 갈색목단문단치마와 함께 진한 갈색을 띠고 있다⁷⁾. 이갈색목단문단치마의 파편일부를 분석한 결과 쪽과 지초로 염색된 것이 변색된 상태임이 밝혀졌다⁸⁾. 따라서 이 농갈색무명접창의 역시 원래는 청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루색목단문단저고리[사진 4]는 길(胴)은 문양단으로, 소매는 평직의 명주를 사용하며 동일 의복 안에서 구성부위에 따라 소재를 달리하였다. 따라서 의복전체가 동일한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구성부위에 따라 다양한 색조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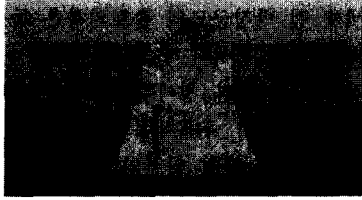
[사진 1] 아청색무명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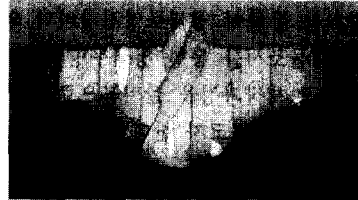
[사진 2] 청색무명겹창의



[사진 3] 농갈색무명겹창의



[사진 4] 두록색목단당저고리



[사진 5] 소색명주저고리

이와 같이 전 박장군묘 출토의복은 의복의 종류가 다양한 특징을 지닌다. 또한 쪽염으로 표현될 수 있는 3가지 색조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침염과 부분 염색된 예와 의복의 소재를 통한 다양한 색조의 표현방법 또한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 청색무명겹창의는 색과 염색법 모두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2. 청색무명겹창의의 위치

출토복식에 나타난 창 의 유형과 문헌에 나타난 명칭을 통하여 청색무명겹창의의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창 의는 의복의 구성가운데 트임이 있는 의복을 말하며, 출토복식 가운데 트임이 있는 의복류는 창 의⁹⁾· 옆트임포¹⁰⁾· 중치막¹¹⁾으로 명명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명명된 이유는 문헌에 나타난 명칭과 의복유형이 일치하지 못한 결과인 동시에 창 의유형이 다양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창 의의 유래와 착용에 대해서 여러 선학들의 의견¹²⁾이 있으며, 김미자와 윤미화는 창 의는 중국계의 의복으로 조선중기이후 국속화되었으나 그 유래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특히 윤미화는 이러한 창 의는 그 형태구성에서 무의 있고 없고, 트임의 위치변화, 그리고 소매의 좁고 넓은의 변수의 다양화를 통하여 국속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평상복의 대창 의· 소창 의· 중치막 의 3종류와 의례복의 학창 의가 있다(윤미화, 1982). 유희경·김미자는 옷자락에서 소창 의와 중치막 은 3자락이며, 대창 의는 옷자락이 4자락이고, 소매형태는 소창 의는 좁은 소매이고 대창 의와 중치막 은 큰소매로 구분하여¹³⁾ 학자마다 이견을 지니고 있다. 또한 창 의의 명칭에 있어서 소창 의· 대창 의 문헌기록은 18세기부터 볼 수 있어¹⁴⁾ 실제 출토창 의가 나타나는 16·17세기와는 시기적인 거리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출토창 의는 조선중기의 염습의이며, 당시의 일상복이었다¹⁵⁾. 이러한 조선중기 예서는 당시의 생활근간이 되었던 지침서¹⁶⁾로써 당시 의복형태와 명칭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조선중기 문헌의 상례 의 염습 의 가운데에서 당시 착용되었던 창 의가 발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문헌에는 창 의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창 의유형과 같은 의복이지만 당시는 다른 명칭으로 불리었을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1) 조선중기 창 의유형과 명칭

출토복식가운데 트임이 있는 창 의류는 김위(6)·구례손씨(1)·전박장군(1)·진주하씨(1)·임계백(1)·홍우협(13)·홍진중(8)묘에서 발굴되었으며, 그 생졸연대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김위·구례손씨·전박장군·진주하씨·임계백의

〈표 1〉 출토복식의 출토지 주인공 생졸연대표

출토지	추정년도		1600		1700	
	출토의복수					
김위(—1593—)	6		-----			
진주하씨(임란직후)	1		-----			
전박장군(—1592—)	1		-----			
구례손씨(1576-1626)	1		←-----→			
임계백(1598-1639)	1		←-----→			
홍극가(—1670)	1				-----→	
이단하(—1686)	1				-----→	
홍우협(1655-1691)	13				←-----→	
홍진중(1649-1702)	8				←-----→	
김덕원(1634-1704)	11				←-----→	

←-----→ : 출생·사망연도 ----- : 출생·사망연도 추정

묘는 앞시기인 16세기후기에서 17세기전반의 것과 홍극가·홍우협(김명숙, 1983)과 홍진중과 김덕원과 같이 17세기후반의 것으로 분류된다. 또한 분묘주인의 성별은 김위·홍진중·홍우협과 같이 피장자가 남자인 것과 전 박장군·임계백과 같이 남녀합장 분묘, 그리고 구례 손씨·진주 하씨와 같이 여자 분묘의 것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출토의복의 수와 연관시켜보면 남자의 단독 분묘인 김위·홍진중·홍우협·김덕원의 분묘에서는 수가 많은 반면 여자의 분묘인 구례 손씨와 진주 하씨 그리고 남녀합장 분묘인 전박장군·임계백 분묘에서는 그 수가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추정 연대와 관계없이 피장자의 성별에 따라 그 출토의복수의 차이라 유추할 수 있으며, 남자 분묘에서 동일한 종류의 의복이 많이 출토되는 것은 피장자가 생존시의 착용이 많았음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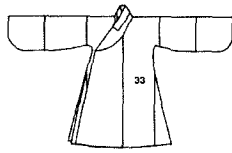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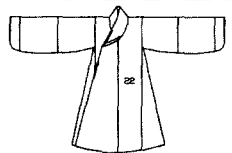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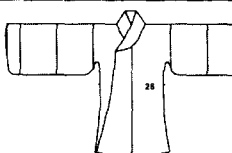
(1) 출토창의의 유형분류

창의는 깃·소매·트임·무의 요소로 형태가 구성된다. 출토창의를 이러한 구성요소의 성격(장인우, 1985)에 따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1]의 I·II·III·IV 4유형으로 분류된다. 4유형 모두 구성요소가운데 칼깃과 옆트임이 공통적이다. 창의에 있어서 트임은 크기와 위치에 의하여 창의유형을 분류하는 중요한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어왔다¹⁷⁾. 그러나 조선중기 출토창의에 있어서는 일부에서만 뒤트임이 나타나나 소수에 미칠 뿐 아니라 일정하지 않으며, 크기는 10cm내외로 차이는 있지만 일정하여 그 변화를 볼 수 없는 반면 소매와 무 그리고 의복의 크기에 의하여 유형을 달리한다.

의복의 크기에 있어서 I형은 길폭이 32cm인 반면 II형은 길폭이 23cm이고, III·IV형은 28cm내외이다.

무에 의하면 I형은 삼각형무, II형은 정삼각형

I	II	III	IV
			
김위	구례손씨·진주하씨·임계백 ·전박장군	홍우협·홍진중·김덕원	홍우협·홍진중·김덕원 ·홍극가·이단하

[그림 1] 조선중기 출토창의의 유형

〈표 2〉 구성요소에 의한 출도장의 형태와 크기

출도지	분류	크기		깃			소매			무				트임		길이	
		총길이	길폭	목판깃	칼깃	당코깃	화장	광수	적선	곡선	유(有)			위치			크기
											정장형후	삼각형후	사다리꼴후	사각형후	무(無)		
김위	보고서 명칭																
	소색명주누비	127	33.6	●			99.5		●	●				●		●	55
	소색명주누비	127	32	●			97		●	●				●		●	61
	소색명주	124	34	●			102		●	●				●		●	59
	소색무명누비	120.5	32.5	●			100		●	●				●		●	63
	소색무명누비	126	33.5	●			104		●	●				●		●	61.5
	갈색명주누비	약126	33.5	●			105		●	●				●		●	60
구례손씨	소색명주누비	127	23	●			113		●		●			●		●	74
전박장군	청색무명겹	124	21	●			약96		●	●	●			●		●	71
진주하씨	창의 1	118	23	●			82		●	●	●			●		●	53
임계백	백색무명겹창의		23	●					●	●	●			●		●	
홍우업	흑색명주착수누비엮트임포	114.5	25	●			93		●					●	●	●	파손
	소색명주착수누비엮트임포	122	29	●			88		●					●	●	●	72
	소색명주착수누비엮트임포	116	23.5	●			95		●					●	●	●	68
	황갈색명주착수누비엮트임포	120	27.5	●			93		●					●	●	●	67.5
	소색명주착수누비엮트임포	110	27.5	●			96		●					●	●	●	64
	갈색명주착수누비엮트임포	111	28.5	●			91.5		●					●	●	●	63.5
	소색명주착수누비엮트임포	125	29	●			93		●					●	●	●	61
	소개명주착수누비엮트임포	112	30	●			96		●					●	●	●	63.5
	소색명주광수엮트임포	120	33.5	●			113	●						●	●	●	63
	소색명주광수누비엮트임포	119	30.5	●			120	●						●	●	●	66.5
	갈색명주광수누비엮트임포	118	29	●			118	●						●	●	●	66.5
	소색명주광수엮트임포	122	28(추)	●			109	●						●	●	●	71.3
	황색칠보운문단협수	123(추)	30(추)	●			127		●		●			●	●	●	96
홍진종	① 명주창의	123.5	29.5	●			115	●						●	●		—
	② 명주누비창의	124.8	27	●			113	●						●	●		—
	③ 착수납의 창의	113.2	27.8	●			94.5		●					●	●		—
	④ 착수납의 창의	116.2	27	●			99		●					●	●		—
	⑤ 명주납의 창의	117	23	●			104	●						●	●		—
	⑥ 명주납의 창의	117.5	25	●			110	●						●	●		—
	⑦ 명주납의 창의	123.4	30	●			114.6	●						●	●		—
	⑧ 명주납의 창의	104.2	20	●			99		●					●	●		—
김덕원	① 소색명주창의	104.2	20	●			—	●						●	●	●	—
	② 명주누비창의	121	27.5	●			113	●						●	●	●	—
	③ 梨花縠文縐衣	124	27.5	●			120	●						●	●	●	—
	④ 明紬縐衣	123.8	27.3	●			120	●						●	●	●	—
	⑤ 明紬누비 縐衣	121	27.5	●			113.8	●		●				●	●	●	—
	⑥ 明紬누비 縐衣	121.5	27	●			110	●						●	●	●	—
	⑦ 明紬누비 縐衣	121.5	27	●			114.5	●						●	●	●	68.5
	⑧ 貢縐縐衣	128	28	●			122.5		●					●	●	●	78
	⑨ 누비 縐衣	126	27.5	●			121.5	●						●	●	●	72
	⑩ 明紬窄袖縐衣	119	28	●			113		●					●	●	●	—
	⑪ 菊花文縐衣	117	27	●			75		●					●	●	●	—
이단하	포	—	—		●			●						●	●	●	—
홍극가	포	—	—		●									●	●	●	—

김위·구례손씨·전박장군·임계백은 연구자/진주하씨 유희경·김미자/홍우업 김명숙/홍극가·이단하 홍미화/홍진종·김덕원 김동욱·고복남의 자료참고

무와 사다리꼴무, Ⅲ형과 Ⅳ형은 대부분 무없이 구성된 유형이다. 무가 없는 유형 Ⅲ·Ⅳ형에서도 삼각형무가 구성된 홍진종1점과 김덕원2점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앞의 크기에 있어서 Ⅰ형이 Ⅱ형보다 길 폭이 넓은 것을 고려한다면 Ⅱ형이 Ⅰ형과는 달리 사다리꼴무와 정삼각형무를 함께 구성됨으로써 착용시의 활동량을 보완하였던 것으로 유추한다.

착용자의 성별에 의해서 Ⅰ·Ⅲ·Ⅳ형은 모두 남자의 출토지인 반면 Ⅱ형은 구례 손씨·진주 하씨의 여자피장자 분묘와 전박장군과 임계백의 남녀합장 분묘로써 모두 여자의복의 출토가능성을 지닌다. 고복남이 언급한 창의를 남녀 함께 착용하였던 의복이었을 제시¹⁸⁾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Ⅰ·Ⅲ·Ⅳ형은 남자의 창의로, Ⅱ형은 여자의 창의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물론 피장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이성의 의복이 출토된 경우도 있고 우연의 일치로 김위의 신체적 크기가 다른 출토지 피장자보다 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소매변화는 Ⅰ·Ⅱ형은 곡선소매인 반면 Ⅲ형은 통수이고, Ⅳ형은 광수이다. Ⅲ형과 Ⅳ형의 두 종류의 소매가 동일 출토지(홍진종·김덕원·홍우협) 내에서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특정 집안의 예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조선중기 창의의 4유형을 피장자의 생존시기<표 1>과 연관시켜 살펴보면 Ⅰ·Ⅱ형은 비교적 앞 시기 출토지 창의인 반면 Ⅲ·Ⅳ형은 뒤 시기의 창의로 시기적인 차이를 볼 수 있다. 여기서 조선중기 출토창의의 4유형을 출토시기로 분류하고 이를 통하여 성별·크기·소매·무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17세기 전반의 두 유형은 무와 크기 및 착용자의 성별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여기서 의복의 크기 즉 길의 나비가 작은 유형의 출토지가 모두 여성이거나 남녀합장이다. 이는 17세기 전반에는 남녀가 함께 창의를 착용한 것으로 의미한다. 즉 남녀창의는 의복의 크기 특히 길의 나비를 달리한 것으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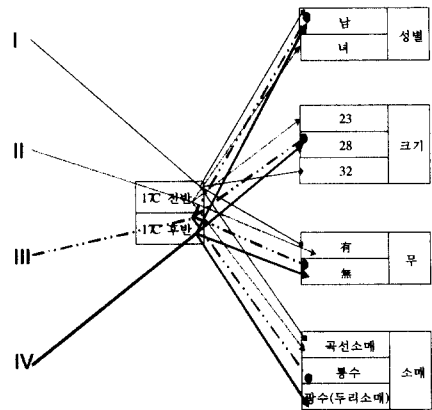
또 17세기 후반의 두 유형은 17세기전반 곡선소매 창의에서 통수와 광수의 분화됨을 의미하며, 이는 조선중기 이후 실물창의의 두 종류(김미자, 1979)가

17세기 후반부터 비롯됨을 뜻한다. 더욱이 이 시기 출토지 피장자가 모두 남성인 점과 또 다량의 창의가 출토되는 점(표 1 참조)은 이 시기부터 창의가 남자의 보편적인 의복으로써 착용되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17세기의 전반과 후반은 정치적으로 봉당정치의 질적 변화의 시기이며, 사회적으로는 산업진흥으로 새로운 부가 창출된 시기로 뚜렷한 구분이 있었던 것을 볼 때¹⁹⁾, 이러한 사회배경이 복식에 나타난 한 결과 가운데 하나로 생각한다.

(2) 문헌에 나타난 창의의 명칭

출토창의는 중의(中衣) 즉 반침옷이었으며, 김미자·윤미화는 창의는 중국제의 포가 전래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중기부터 편복포로 착용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그 명칭은 <표 3>과 같이 창의·중치막이 있으며, 최고기록은 경종(景宗)4년(1724)에 나타난 「중치막(中赤莫)」이 있으나, 실물창의가 출토되는 조선중기에 뚜렷한 명칭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윤미화, 1982). 15세기 국조오례의의 중의(中衣)로 철리가 나타나는 반면 조선중기 상례비요에서는 포오(袍襖)라는 용어를 볼 수 있다²⁰⁾. 그러나 이 포오는 포류의 명칭으로 생소한 명칭이다.

포오를 중국사전에서 살펴보면²¹⁾ 오란 짧은 포이며, 협의(夾衣)라 하였고,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포오(袍襖)란 솜옷의 포로 반침옷이며, 중치막과 유사하며, 겨울옷이라 하였다. 이는 바로 출토 창의의 특징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연의 일치이나 포오는 중치막보다 먼저 나타나고, 출토창의와도 시



[그림 2] 출토창의의 유형분류와 요인

<표 3> 창의명칭의 시대분류

저술연도	1600		1700		1800	
도서명						
국조오백의 (1474)						
상례비요 (1583)	◆					
가례원류 (1683)			◆*			
경종4년(1724)				*		
영조(1776)					*	
영조17년(1741)				◇		
정조 17년(1793)					◇	
순조34년(1834)						◇

◆ 포오 * 중치막 ◇ 창의

대가 일치하고 있음은 물론 17세기 후반에 출토되는 중치막은 문헌에서도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포오는 중국계 포인 창의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로 유추한다. 중치막은 창의보다는 문헌에서 시대적으로 앞서고 있다. 특히 이 포오를 남녀가 공용으로 착용하였다고 함²⁾으로써 앞의 17세기 전기의 창의Ⅱ형이 여자 의복이었음을 더욱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III. 청색무명겹창의의 재현과정

청색무명겹창의를 재현하기 위하여 실물조사를 통한 성격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재현과정을 3단계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단계는 실물에 나타난 의복의 형태와 재질 및 봉제방법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복원도를 작성하는 과정이며, 다음단계는 앞의 조사를 기초로 재현작업을 통하여 복원품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여기서 과거 의복의 마름질과 구성법 및 제작순서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단계는 제작된 의복에 부분염을 함으로서 완성하고자 한다.

1. 청색무명겹창의의 성격

1)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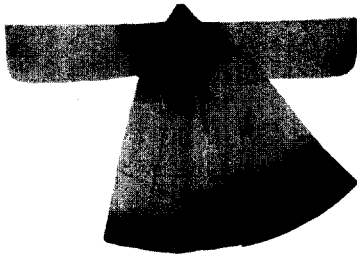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색무명겹창의는 그 색상과 염색방법에서 다른 의복과 구별된다.([사진 1·2]참조). 이 청색무명겹창의의 색상을 색차측정기인 Minolta Chroma-meter CR-200으로 측정한

L*a*b값은 <표 4>와 같다. 즉 1993년의 측정치에 비해 2000년의 측정치에서 L값과 b값이 현저히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L축은 White (+)-Black(-), A축은 yellow(+)-Blue(-), B축은 Red(+)-Green(-)으로 나타낸다. 즉 L값의 증가는 색상의 명도가 낮아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재질의 갈변현상에 의한 결과로 유추한다. b값의 변화는 색상이운데에서는 녹색조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본 유물의 퇴색은 청색가운데 녹색조의 퇴색과 직물의 황변에 의한 명도의 감소가 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청색무명겹창의는 염색방법이 선염이 아닌 후염인 점과 부분염색으로 이색(異色)배색되었다. 여기서 청색무명겹창의의 염색상태를 볼 때 [사진 6]과 같이 고대와 안설펀을 중심으로 대각선으로 대칭되었다. 즉 걸쇠자락을 벌린 상태에서 고대와 안설펀을 대각선으로 접어서 염색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왜 걸쇠를 벌린 상태에서 염색을 하였는지 또 왜 대각선으로 접은 상태에서 염색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이는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표 4> 청색무명창의의 색상변화

종류	측정연도	L	a	b
유물	1993	46.72	-4.52	-15.02
	2000	62.18	-4.01	-8.44
재현품		97.68	-0.24	1.54



[사진 6] 청색무명겹창의

2) 형태와 봉제

전박장군묘에서 출토된 청색무명겹창의의 형태는 원형이 거의 완전한 것으로 양호하며 다음과 같다.

청색무명겹창의의 구성유형은 2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걸감은 밀도가 약50울×38울(경사×위사/1인치)의 무명이며, 안감은 밀도가 44울×29울(경사×위사/1인치)의 무명이다. 여기서 안감은 걸감과 동일 재질일지라도 그 질이 떨어진 것을 사용한 당시 합리적인 의복재료의 사용을 볼 수 있다. 걸감과 안감의 직물은 모두 폭이 약34cm이다.

청색무명겹창의는 총길이가 124cm이며, 어깨는 앞뒤가 굽로 연결되어 1장구성이며, 고대는 약20cm이며, 화장은 95cm이며 3폭반 구성이다([그림 2]참조).

깃은 2겹이며 2장으로 구성된 칼깃이다. 그 크기는 깃나비는 9.5cm이고, 깃길이는 91.5cm이다. 깃선을 따라 0.1cm안쪽에서 6~7땀/1cm으로 홈질로 상침처리되었으며, 이 때 실은 명주실이 사용되었다([그림 2]참조).

무는 거드랑이에 정삼각형무와 사다리꼴형무의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정삼각형무의 크기는 2.5cm×2.5cm이다. 사다리꼴무의 윗나비는 1.5cm이고 아랫나비는 2.1cm이며 무의 길이는 95.5cm이고 무의 올방향은 옆선과 일치한다.

섶은 걸섶과 안섶 모두 2장구성이며, 걸섶의 올방향은 중심과 일치하고, 걸섶의 나비는 39cm이다. 큰 부분의 나비는 33cm이고 길이는 109cm이며, 작은 부분은 나비5.5cm이며 길이는 24.4cm이다. 걸섶의 시접은 길쪽으로 향하였다. 안섶 역시 두 부위로 구성되었다. 큰 부위의 나비는 8.5cm이고 길이는

89.5cm이며, 작은 부위는 나비17cm이고 길이는 98cm이다. 두 부위 모두 올방향이 옆선과 일치한다([그림 2]). 식서의 솔기는 0.1cm이고 푸서의 경우는 약0.5cm이다.

고름은 겹고름과 속고름이 모두 홀로 구성되었다. 겹고름의 나비는 4cm이고, 길이는 긴고름이 44.5cm이고, 짧은 고름은 37cm이다. 고름의 봉제는 푸서의 경우는 0.2cm로 1번 감아 감침질로 처리되었다. 겹고름의 긴고름은 고름나비가 약2.5cm가 되도록 접어서 오늘날의 고름 다는 방식과 동일하였다. 겹고름의 위치는 접은 고름나비의 1/2은 깃에 놓고, 1/2은 섶에 놓였다. 짧은 고름은 진동선상의 소매와 연결부위에 놓였다([그림 3]참조). 속고름의 나비는 2.5cm이며, 길이는 40cm로 길이가 유사하며, 양쪽이 모두 푸서로 마름질되었으며, 모두 0.2cm나비로 1번 감아 감침질로 처리되었다.

트임은 옆트임이며 크기는 91cm이다. 상침은 깃과 수구 및 앞중심과 밀도면 그리고 트임에 이르기까지 완성선에서 1mm안쪽에 명주실로 1cm에 7땀(7땀/1cm)의 홈질로 상침되었다.

이와 같이 유물의 실물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청색무명겹창의의 복원도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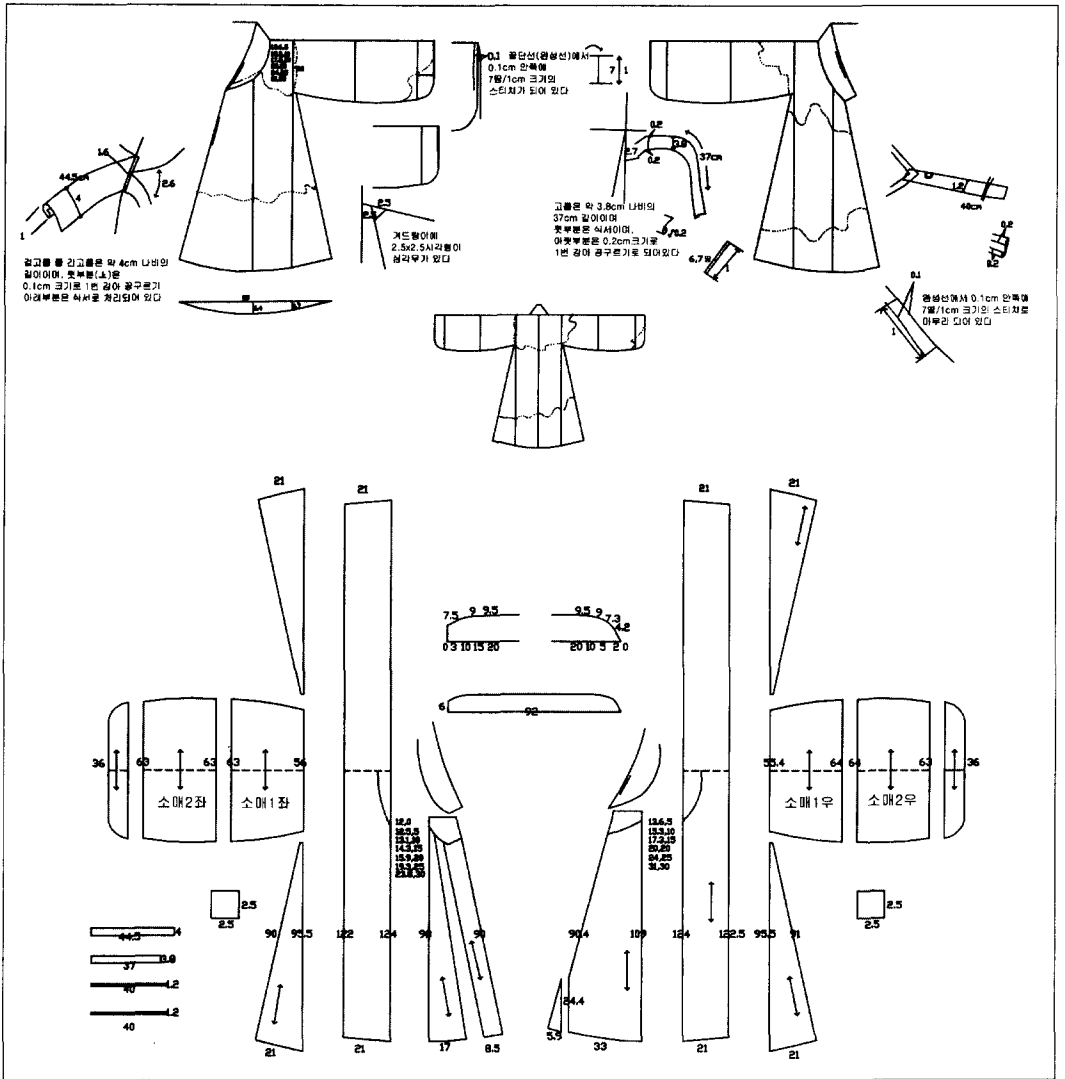
2. 재현 과정

1) 마름질

마름질은 앞에서 제작된 청색무명겹창의의 복원도에 나타난 각 구성부위를 34cm폭 무명에 배치하면([그림 4]와 같다. 길폭이 23cm로 좁게 구성됨에 따라 그 여유분에서 깃과 끝동 그리고 안섶의 일부 및 고름 등을 마름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길폭을 좁게 함으로서 약 2~3자(1.2~1.3y)의 옷감이 절약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불규칙하며 0.1~0.2cm로 좁은 시접크기와 좁은 깃나비의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유물의 제작된 무명은 22자와 24자 2필을 각 걸감과 안감으로 사용하여, [그림 4]와 같이 마름질할 경우 걸감과 안감 모두 22자가 각각 소요되었다.

2) 봉제

청색무명겹창의의 재현작업은 걸감과 안감의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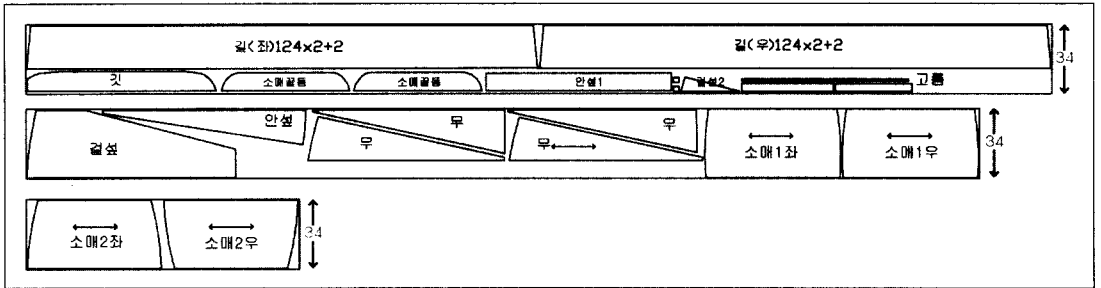
[그림 3] 청색무명겉창의 복원도

성단계, 안팎의 연결단계, 상침단계의 3단계로 진행하였다.

① 겉감과 안감의 완성단계

본 재현창의는 어깨선이 굽선인 점과 배래가 4겹 구성이 아니다. 이에 따라 각 구성부위를 연결할 경우 무의 연결과 소매의 연결에서 4겹구성이 아닌 겉감과 안감을 각각 구성하여 안팎을 연결하는 것이 현재 한복구성과의 차이점이다. 여기서 무의 올방향

을 살펴보면 무의 사선부위가 올방향과 일치한다. 또 이때 겨드랑이에서 정삼각형의 무를 연결함에 따라 소매에 사다리꼴무와 정삼각형무를 함께 연결하고 이를 진동으로 길에 연결시켰을 때 훨씬 봉제가 용이하였다. 따라서 본 재현에서는 앞의 한복구성과는 달리 등술기·쇳달기·소매달기(소매와 무 연결하기) 즉 무를 소매에 연결시킨 후 진동을 연결시키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그림 4] 청색무명겹창의 마름질

· 좌우길(胴) 연결하기

어깨가 굽로 구성되었으며, 직선으로 이루어졌으며, 길은 나비가 23cm로 솔기가 푸서와 식서로 마름질되었다. 여기서 뒷중심의 솔기는 식서가 사용되었으며, 이때 솔기의 크기는 약0.1cm로 끝끝이 흠질로 봉제되었다. 이때 솔기의 처리방향은 본 유물이 두 겹의 의복이고, 솔기를 식서의 끝을 연결하여 그 방향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 좌우길에 섯달기

겉섯을 길에 연결하기에 앞서 2장의 겉섯은 약 0.5cm크기 시점으로 연결하였다. 2장의 겉섯 모두 길과 동일한 올방향이며, 길과는 약0.1cm크기 흠질로 연결되었고, 시점은 길쪽으로 처리되었다. 안섯은 2장이 약0.5cm시점으로 연결되었으며, 안섯의 올방향은 안섯의 사선방향과 일치하며, 길과는 0.1cm크기로 연결되었다. 각 구성부위 가운데 길과 소매의 올방향은 길방향과 일치시키고, 섯과 무와 같이 사선구성으로 이루어진 부위중에서 안섯과 옆무의 사선부위는 올방향과 일치시킨 반면 겉섯은 길과 동일하게 올방향을 하였다. 이는 의복의 형태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올방향을 통하여 기능성을 향상시켰음을 볼 수 있다.

· 소매와 무 연결하기

소매의 부위는 0.1cm크기로 연결하고 솔기방향은 가름솔로 처리되었다. 소매의 진동부위에서 소매와 사다리꼴무의 윗부분을 1.5cm를 먼저 연결하고, 여기에 정삼각형무를 연결하였다. 이 정삼각형무를 통하여 소매앞뒤와 무의 앞뒤의 4부위가 연결되었다. 이때 정삼각형의 시점은 완전히 펼친 상태로 처리되었다. 정삼각형무 연결부위이하 앞과 뒤의 무를

연결하고, 소매배래를 각각 연결한다. 이때 무의 연결솔기와 배래솔기는 뒤쪽으로 처리한다. 여기서 겨드랑이의 정삼각형무는 정사각형으로 구성되어 겨드랑이부위가 자연스럽게 bias로 구성되는 반면 이 구성으로 인하여 소매배래와 겨드랑이부위가 4겹박기를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 길에 소매·무 연결하기

길과 앞에서 연결된 소매와 무를 연결하여 진동을 만든다. 이 때 시점은 소매쪽으로 처리되며, 주의할 점은 이미 올방향으로 마름질된 앞뒤의 무연결로 진동선에서 소매아랫부분이 사선으로 휘어진다. 이를 늘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 연결한다. 겉감과 안감을 완성한다. 이때 시점은 길은 0.1cm로, 소매와 무는 0.5cm크기의 솔기로 연결한다. 솔기는 길쪽으로 처리하였다.

② 안팎 연결하기

안팎을 연결하기 이전에 안감과 겉감의 소매를 4겹봉제의 경우와 같이 어깨선으로 앞과 앞을 마주 겹쳐놓고 연결하여 각 각 연결된 배래시점의 중간부위를 흠질로 연결한다. 시점은 겉감 쪽으로 꺾는다. 이후 안감과 겉감의 겹을 마주놓고 소매를 끼워놓고 수구와 옆트임 그리고 앞중심과 밑도련의 위치를 잘 맞추고 0.5cm솔기로 연결한다. 이 때 시점은 겉감쪽으로 처리하고 밑도련이 곡선으로 처리됨에 따라 시점부위를 흠질로 이세 처리되었다. 깃부위를 창구멍으로 뒤집는다.

· 깃달기

깃은 겉감과 안감의 깃머리를 곡선으로 처리한 후 연결한다. 이때 시점은 겉감쪽으로 꺾고 깃머리부터 안깃방향으로 겹깃을 연결한다. 이후 안깃을

감침질로 처리한다.

③ 상침하기

수구와 깃 그리고 앞중심과 밑도련의 완성선을 따라 1cm에 7뿔의 크기로 반박음질로 상침되었다. 트임부위의 상침은 2겹구성의 의복에서 세탁 후 안감이 겉감 밖으로 밀려나오거나 혹은 착용 후 형태가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위한 봉제라 할 수 있다.

3) 염색

본 재현작업에서 염색은 염료인 쪽의 구입과 정확한 색상을 재현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다년간 쪽염을 하여온 전문가에게 의뢰하였다.

본 청색무명겹창의가 완성된 의복을 염색하여야 하는 후염인 점과 또 부정형의 염색된 부위를 비교적 정확히 재현하여야 하였다. 염색과정은 비교적 간단하여 염색가가 원액이라는 영역에 1회 약 2~3분간 담갔다 건조시켰다. 건조시 색상이 유물보다는 연하였다. 원액이 아닌 다른 용액에 1회정도 더 염색하였다. 여기서 염색가는 여러 번의 염색은 색을 탁하게 함으로 1~2회로 염색횟수를 한정시켰다. 염색은 깃과 도련 그리고 소매 등이 부분염색됨에 따라 각 깃과 밑도련 등을 따로 염색하였다. 염색과정이 끝나고 건조직전에 더운물에서 잣물체거작업을 하였으며, 건조는 일광아래에서 건조시켰다.

이상과 같이 청색무명겹창의의 구성에서 길폭의 23cm로 좁게 구성된 점과 사다리꼴무와 삼각형무의 구성은 옷감의 소요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성과 그에 따른 활동량을 보안하기 위한 마름질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창의 깃·밑도련·수구와 앞중심의 상침처리와 무와 쇠의 올방향은 옷감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봉제임을 알 수 있었다.

IV. 결 언

포류가 다양하게 발달한 조선시대에 있어서 창의는 조선 중·후기에 가장 폭 넓게 착용되었던 의복 가운데 하나이다(유송옥, 198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오래된 창의의 실물가운데 조선중기 출토창의와 그 하나인 전박장군묘 출토청색무명겹창의를 재

현함으로써 조선중기 창의의 구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출토창의를 통해서 볼 때 조선중기창의에는 4유형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선중기 창의는 소매의 종류, 의복의 크기, 무의 유·무와 종류, 피장자(착용자)의 성별이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17세기중반을 기점으로 뚜렷한 변화를 볼 수 있다. 17세기전반의 두 유형(I·II)은 착용자의 성별과 의복의 크기(길나비) 그리고 무의 종류가 다른 반면 17세기후반의 두 유형(III·IV)은 소매의 종류가 다르다. 즉 17세기 전기까지는 남녀가 함께 창의를 착용한 반면 17세기후반부터는 남자의복이며, 특히 소창의와 창의(중치막)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유추한다.

전박장군출토 청색무명겹창의는 조선중기 출토창의의 제2형으로 17세기전반 여자가 착용하였던 포로 추정하며, 당시 명칭은 포오(袍褙)였던 것으로 유추한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더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청색무명겹창의는 칼깃·곡선소매·사다리꼴무와 정삼각형무·엇트임으로 구성되어 다른 유형의 창의와 사다리꼴무와 정삼각형무의 구성과 길나비가 23cm로 좁게 구성된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제작을 통하여 볼 때 길폭을 작게 함으로써 34cm폭 무명22자가 소요됨과 약2~3자의 옷감이 절약됨을 알 수 있었으며, 여기서 사다리꼴무와 삼각형무의 구성이 좁은 길폭구성에 의한 의복의 활용성을 보안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의복 구성에 있어서 재료를 절약하는 합리성과 이를 구성으로 보안하는 융통성이 반영된 것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삼각형무의 구성에 있어서는 전통의 봉제방법인 4겹봉제 구성이 어려웠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조선중기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창의가 나타나며, 특히 17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창의착용에서 큰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는 17세기 중반의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반영된 결과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창의가 조선후기사회의 중심의복으로 발전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위 · 순천김씨 · 구례손씨 · 전주이씨 · 안동김씨 · 홍우협 의 유물
- 2) 함영희씨의 소장유물
- 3) 김동욱 · 유송욱, 충북정원군전박장군묘출토유물, 중요민속자료조사보고서 제83호, 문화재관리국, 1980.
- 4) 김동욱, 임란전후의 출토복식, 임란전후 출토복식 및 상례, 충북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 제8책, 1983.
- 5) 앞선 최초의 보고서와 충북대학교 박물관보고서에서는 직령포로 언급되었으나, 이는 장의이며,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명칭이다.
- 6) 김명숙교수 충청지역에서 발굴되었으며, 아직 발표되지 않은 유물가운데 한 예가 이와 유사함을 언급하였다.
- 7) 장인우, 조선중기 일상복의 색상 연구(I), 한국복식학회지, 41, 49-62, 1998.
- 8) 李英恩, 韓國傳統染色技術의 化學的 分析을 위한 基礎研究, 中央大學校 大學院 化學科 碩士學位論文, 1993.
- 9) 김동욱(1983), 앞글.
유희경 · 김미자, 진주하씨 출토문헌과 복식조사보고서, 건들바우 박물관, 1991.
고복남(1986), 앞글.
김동욱 · 유송욱(1980), 앞글.
이은주, 안동지역전통복식, 안동대학교 박물관 도록, 1996.
장인우, 임계백 · 임계택 출토복식, 충북대학교 연보 제7집, 1988.
- 10) 김명숙, 홍우협 묘 출토17세기복식논고, 충북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 제37책, 1993.
金美子, '무없고 옆트인 포에 대한 연구', 서울여대 논문집 제8호, 1979.
- 11) 김동욱 · 고복남, 중요민속자료 조사보고서 제75호, 문화재관리국, 1979
- 12) 유송욱, 조선시대 출토복식을 통해 본 남자포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18, 151-203, 1984.

高福男(1986), 鶴창의는 深衣와 더불어 상당히 오래된 것이며, 여자의 출토지에서 창의를 출토되는 것으로 조선중기에 남 녀 가 창의를 착용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金美子(1979) 앞글, 창의는 조선시대의 여러 종류의袍와 그 형태가 다른 중국제로 언급. ...

金東旭, 韓國服飾史, 아세아 문화사, 1979.

尹美花, 髦衣類에 關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직물학과, 석사학위논문, 1982.

- 13) 김영숙편저, 유희경 · 김미자,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 14) 英祖實錄, 卷37, 17年(1741), 10月. 正祖實錄, 卷37, 17年(1793), 10月. 純祖實錄, 34年(1834), 4月. 崔南善, 朝鮮常識, 서울, 東明社, 1947.
- 15) 장인우 · 이춘계, 15~17세기에서 나타난 염습의와 그 의미, 한국복식학회 제25회, 1995, 269-284.
- 16) 高英津, 16세기말 四禮書의 成立과 禮學의 發達, 韓國文化 12, 서울대학교 韓國文化研究所, 1991.
- 17) 김미자, 무없고 옆트인袍에 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논문집 제8호, 391-423, 1979. 특히 학자에 따라 트임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소매형태에 따라 증치막 · 대창의 · 소창의 등의 구분을 달리하고 있다.
- 18) 高福男, 앞책, p. 13. 308, 1986. 조선중기에 남 녀가 창의 착용을 문제제기하고 있다.
- 19) 李成茂, 朝鮮의 社會와 思想, 一潮閣, 1999.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1999.
- 20) 申義慶, 喪禮備要, 서울대학교 奎章閣 도서번호 1258, 喪禮「襲」團領(深衣) 搭襖 · 袍襖 汗衫·, 1583.
- 21) 辭海, 大字修訂本, 臺灣中華書局印行, 中華民國68年. 襖袍襖也. 今俗爲衣之長者曰袍, 短曰襖. 夾衣爲
- 22) 家禮原流, 서울대학교 奎章閣, 도서번호1633, 袍襖有綿者袍, 長襖襲衣, 如俗中赤莫, (冬衣)之類, 俗稱赤古里, 男女共用.